

보도자료 (2019.12.02)

문의 : (주)랩지노믹스 신영준 차장 (031-628-0725) // thanks@labgenomics.com

배포 직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랩지노믹스, 중국 현지 조인트벤처와 진단기술 이전계약 체결

분자진단 헬스케어 전문기업 (주)랩지노믹스(084650, 대표 진승현)가 중국 현지 합작법인에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 회사는 2일 강소진루이 랩지노믹스 바이오테크 유한공사와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술이전료는 미화 25만불(한화 약 29억원)이다.

강소진루이 랩지노믹스 바이오테크 유한공사는 랩지노믹스가 중국 베이징 진루이 유한공사와 합작투자를 통해 설립한 중국 현지법인으로 강소성 염성시와 하남성 남양시에 검사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전 대상 기술은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선별검사(TDM)로 국내에서는 보편화된 검사이다. 랩지노믹스는 진단장비와 시약제조기술, 진단장비 운용에 관한 노하우를 이전할 예정이다. 기술 이전 완료 후 중국 현지에서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영업 및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회사관계자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의미 있는 실적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올해는 영업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보고, 내년 본격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회사가 그간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높은 수준의 진단 기술력이 현지 법인의 영업력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수입은 매출과 동시에 전액 영업이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흑자전환 기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회사는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구사하면서 지난 9월 8일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끝.

랩지노믹스 CI 1부

